

## ❖ 『돈강 이야기』 - 혁명의 언저리, 러시아의 언저리 돈강 유역의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

### I. 카자크, ... ?

- 러시아어에서의 казак는 투르크어 qazaq(용감한 자, 방랑자) 등의 말에서 비롯했다고 여겨짐.
- 정확한 시작 연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14~15세기 경,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 하에 있던 멸망한 키예프 루시에 거주하던 농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하층민들이 발트해 연안과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먼 흑해 지역의 초원 지대로 도피하게 된다.
- 이들은 농경과 더불어 유목, 사냥, 어업, 또는 양봉 등에 종사하며 나름의 생활 공동체를 점차 구성해 나가게 되었고, 이후 접경한 투르크 인 또는 카프카즈 계통의 여러 부족의 침입 등을 막아내기 위한 ‘자경단’을 조직하게 된다.
- 특히, 돈 강 유역의 카자크는 이반 4세가 흑해와 아조프 해로 진출하던 무렵 투르크 군에 대한 공격과 최선봉에서의 방어전선의 목적으로 모스크바 대공국의 목인과 지원하에 적극적으로 육성되기 시작(1570)한다.
- 이후 돈 강 유역의 이 카자크 들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시대에도 러시아 제국의 최고 변방에서 제국의 방어선을 수비하는 역할을 수도로부터 위임(1721)받으며 독자적인 군사, 생활 공동체로 서서히 자리잡게 된다.
-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동슬라브인들이 주축이 된 이 카자크인들은 타트르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 또한 그들은 자유를 찾아 운명을 시험에 걸고 나선 이들이라는 의미와 러시아 제국은 물론, 이후 폴란드로부터도 직접적으로 지배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일체의 속박을 거부하는 과감성, 전사로서의 명예스러운 삶, 사내다움 등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공동체 이데올로기를 안팎으로 가지게 되었다.
- 또한 이슬람을 신봉하던 오스만 투르크인들의 유럽대륙으로의 침입을 가장 먼저 막아내면서 카자크인들은 이교도 침입에 가장 먼저 맞서는 기독교인 용사라는 종교적 이미지만저도 얻게 되었다.
- 특히 17세기, 지금의 우크라이나 남부 초원지대에 거주하던 카자크를 중심으로 당시 우크라이나의 영토 대부분을 지배하던 폴란드에 자신들 특유의 자유와 독립의 이데올로기로 맞섬으로써 현대 우크라이나의 독립의 영웅, 민족적 자존의 시작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니콜라이 고골의 『타라스 불바』)
- 러시아에서는 현재 아조프 해 유역과 돈강, 볼가강,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 전역에서 카자크 조직이 왕성하게 결집되어 갔다.
- 이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제국에 자신들의 무공으로 충실하게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 20세기 초, 사회주의 혁명이 처음 발발하게 되자 그들의 내부에서도 날카로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른바 부농, 중농의 카자크들은 전통사회를 지키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반혁명의 진영에 서게 되고, 빈농은 적군, 소비에트군의 편에서 혁명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평화롭던 공동체 계층은 계급투쟁의 장으로 변해 버렸고, 내전 기간 동안 같은 마을의 사람들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다.

## II. 작가 미하일 솔로호프

- I-Cam의 『백화나무 숲으로』의 솔로호프 편을 읽기 바람.
- 1965년, 노벨문학상 수상. (세 번째)
- 『고요한 돈강』(Тихий Дон; 1941)이 대표작임. 이외 중편으로 「사람의 운명」(1956)가 또한 뛰어나다.

## III. 단편집 『돈강 이야기』(1926)

- 솔로호프의 데뷔작. 사회주의 혁명 이후 내전기(1917~21) 동안 돈 강 유역 카자크들의 끔찍하고 비참한 갈등 양상을 자의적인 가감없이 진솔하게 그려냈다고 함.
- 솔로호프를 흔히 돈강 유역 카자크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다루어낸 작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데뷔작인 단편집 『돈강 이야기』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카자크는 결코 일면적이지 않다. 반소비에트, 반적위군 성향 또는 진영에 가담해 잔인하게 행동하는 카자크들 역시 빈번하게 등장한다.
- 솔로호프는 카자크라는 계층 전체를 단면적으로 묘사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했던 시대 상황에 대한 어찌면 가장 성실하고 정확한 반영처럼 카자크 역시 혼란스러웠음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다.

「검정사마귀」 - 최초로 발표된 단편. **젊은 니꼴까가 15살 무렵, 적위군 연대에 들어간 이유는?** ‘도시로 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되뇌이는 니꼴까, 그의 앞에 나타난 반혁명군 진영의 카자크 지도자(아따만; атаман), 제분소 주인 루끼치 노인을 대하는 아따만, 돌격하는 니꼴까를 침착하게 베어 버린 아따만, 가족장화를 벗겨내다 발견하는 발목 복사뼈 위의 검은 사마귀, ... \* 적위군에 투신하고, 반혁명도당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

「**참외밭 감시인**」 - 표도르와 미찌까 형제(+ 어머니) vs 아버지 아니심 빼뜨로비치 (->야전군법회의 사령관 임명) 간의 가족간, 세대간의 분열과 대립. 194쪽, 뚜렷하게 의식화된 형 표도르 vs 비루한 아버지의 모습 대비. 미찌까(196쪽, 198쪽), 어머니(199쪽) 등에서 보여지는 표도르에 대한 애정, 198쪽 제일 아랫 부분 썸의 백군성향의 마을의 묘사. 백군 중에서도 인정있는 병사 등의 모습은 이념만을 내세울 수 없는 ‘자연스런’ 상황을 언급. “태양은 마치 백일하에 전개되는 이 광경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걸음을 늦추어서 돈 강의 회계 번쩍이는 수면에 목을 잠그고 있었다”, ... 묘사! 완전히 적군과 소비에트의 신념에 이념화된 형 표도르(204쪽),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치는 미찌까.

「처자가 있는 사람」 - ‘나’의 등장. 단편집으로 전체가 어떤 통일적 구도하에 견고하게 짜여 지지는 못했다. 불쑥(!) 자식 이야기를 꺼내놓은 뱃사공 미끼샤라, ... 부분적으로 형식보다 전달되는 내용에 분명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참한 농민들의, 먹고 살 생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앞섬(271쪽), 또한 웃음과 잔인함을 함께 즐기는 인간의 이중성(272쪽),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적어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듯, ... (275쪽)

「두 남편」 - 무엇보다 여인의 ‘선택’이란 점에 초점. 혁명, 전쟁, 내란 등의 사회적 격변기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여인과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조명. 별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는 전쟁 미망인에게 나타난 젊고 능력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은 남자 vs 돌아온 남편은, 그러나 ‘남편이다’는 법적 우위 하나를 제외하고선 모든 면에서 뒤떨어짐. 또한 내전이 끝나고 1921년부터 추진된 이른바 <신경제정책(НЭП)>의 영향으로 농촌의 마을 역시 집단농장화 되고 농기계의 보급 등을 통한 생산의 증대, 그리고 문맹퇴치 등을 통한 계몽과 교육 등의 당대 사회상이 함께 그려짐. 남편 알렉산드르와 새로운 연인 아르세니는 세대와 가치관에 있어서도 낙후된 가부장적인 모습과 보다 새로운(!), 현대적인 그것의 담지자로 제시된다. 무엇보다도 변화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체념해 받아들이며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여인에서, 집단농장에서의 문맹퇴치 교육을 받고 난 뒤(!!!) 적극적으로 탈출해 나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안나의 모습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망아지」 - 내전의 전장에서 가장 경시되던 생명 자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비극적인 대비를 통해 일깨워주는 단편.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을 죽이는 그들 병사 역시 사실은 곡식을 키우는 농부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갓난 망아지 한 마리까지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존엄성은 내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남색의 초원」 - 앞선 「처자가 있는 사람」처럼 역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화자)의 곁에 ‘나’가 존재한다. 그 ‘나’가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구조이다. 가장 단순하고, 일차적인 구조로 아직은 구성적 기법에서 소탈하게 접근하는 작가의 면이 드러난다. 자하르 노인이 젊었을 때 자기가 모신 주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아들에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한편, 자하르 노인의 손자인 세몬과 아니끼이는 “자하르 노인은 주인에게 일생을 무릎을 꿇고 살았고, 그의 아들에게도 그랬지만, 손자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저항의 뜻과 의지를 밝힌다. 죽음을 예감하고 장화를 벗어주는 큰 아들 세몬의 모습(319쪽), 옷 마저 아까워 벗어놓고 죽을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극빈의 삶에 대한 젊은 주인의 조롱, ...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조카들과 어울리는 작은 아들 아니끼이의 모습은 적군과 소비에트의 혁명 이념을 수용한 농민들의 소박하지만, 강철같은 도덕적 우위를 우회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의 두 자국, 늑대의 발자국과 트랙터 자국의 의미는, ... ?